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여러분! 한군데다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법이 되게

질문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좀 진중하고 무겁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가 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좋게 해서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한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스스로 절감하고 감응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서 스스로 한생각을 낼 때에 그것이 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차츰차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또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업보를 지니고 나왔으면은 팔자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면 그렇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 더 업보를 지을 뿐, 그것을 무마시킬 수 없고 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경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는다면 모든 업보가 무너지는 거죠,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지옥고가 무너지게 되자 고르고 골라서 씨를 뿌린 밭에다 물을 주면 싹이 모락모락 나오듯, 내 마음의 근본이 바로 모락모락 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한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무겁게 떼어 놓게 되고, 말 한마디 할 때 한 번 굴려서 무겁고 지혜 있게 말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을 테죠. "저 스님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똑 떨어지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얼버무려 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딴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한 번만 말을 해 놓고 한번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도 아니 하고 '나쁘다'고도 아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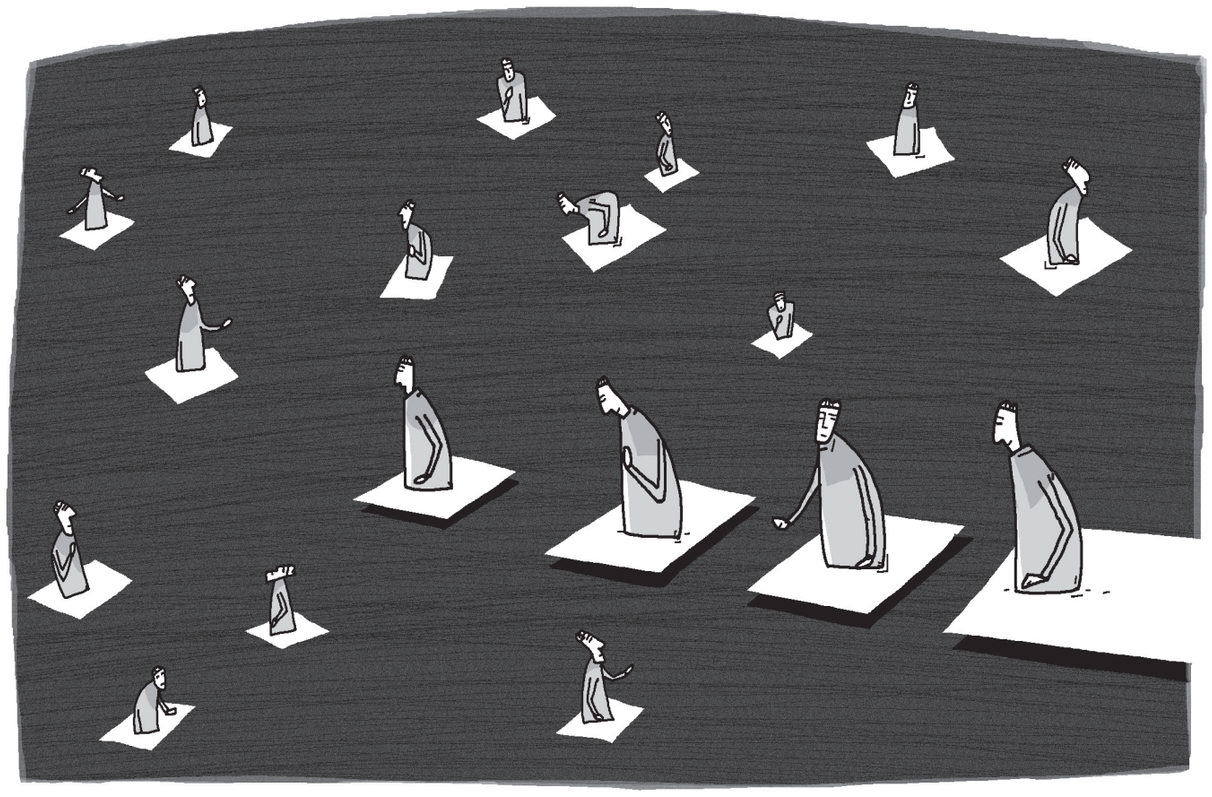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강도도 강도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강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마음으로 '저건 강도다' 그러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선자'고 이건 '악자'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몸을 벗어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다음에 또 그렇게 곡경을 당할 테니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말 한마디 해서 법으로 딱 떨어질 땐 그게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했다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일지언정 때로는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장차 좋은 것도 아니고 장차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어떠한 지경에 도달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설 사람을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꼭 찍어 놔야 옳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참뜻, 이 좋은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정말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손이 손이 아닙니다. 손 아닌 손이 손이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늘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백지장 하나를, 산을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산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 여러분이 그것을 다 놓고 그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인이 되실 것입니다.

환희심이 지속되지 않아…

질문 참나를 발견해 보겠다고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환희심이 생기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다시 화내고 감정적인 내 습성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그런데요, 이 참나를 발견하는 이 문제는요, 성내는 거든 성을 안 내는 거든, 환희심이 나는 거든 환희심이 안 나는 거든 무조건 거기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놔야 되니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어, 거기서밖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선 거기 넣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또 안 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태연한 얘기지마는 맷돌을 굴리는데 심봉이 아래 위 꿰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건 맷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하시려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고 마음을 넓게 지견으로 쓰시면서 좀 더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내 가슴속의 용광로, 제일 최초의 용광로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주처에서 나온 거니까 주처에서 다 알아서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일임하고 놨을 때 비로소 그 작업만 한다면 그 쇠는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죠. 그런데 모두 그저 용광로에 넣는 것만 놨으면 좋겠는데 저기 생산돼 나가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부터 감사하다, 거기서밖에 못 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이거를 꼭 하세요.

악한 세상이 두려워요

질문 태초에 어쩌다 생명이 생겨서,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 두렵기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